



무구 스님은... 재출가한 스님은 1990년 사미니계를 수지했고, 1996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삼선승가대학교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우리출판사를 설립해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1983년 수효사를 열었고, 2000년부터는 남양주 백전사 주지도 맡고 있다. 2004년 복지법인 수효사효림원을 설립해 노인복지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00년 복지부 장관상(복지부)과 문화체육부 장관상(훌륭한 출판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어말선초 불교의 사회복지사업 연구>와 <사람들이 길 가기 어렵다 마오> 등이 있다.

영되고 있으며,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와 전문적인 케어기술 습득을 통해 차별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시설로는 구립서대문전문요양센터가 있고, 정규과 비정규를 합해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있다.

고령화시대와 효 수효사효림원은 첫 사업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를 시작했다. 스님은 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효림원을 운영하겠다는 원력을 밝힌 바 있다. 수효사의 '효' 자가 왜 효도 '효' 인지 알 수 있다. 스님의 '노인복지'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대로라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스님은 "오래 사는 것이 '재앙' 이 될 수 있다."며 고령화시대에 대한 준비를 강조했고, 해법은 복지이며 그 복지는 단순히 시설과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사회의 관심, 즉 가족의 '효'와 사회의 '효'라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점점 효사상이 희박해지는 것은 효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르신들이 효도를 받지 못하

는 것은 자식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대로 효를 가르치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된 것이며, 효를 받기 위해서는 효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사 설립과 출가 본분사 출가자의 본분, 앞서 말했듯 그것은 전법이다. 스님은 수효사를 열면서부터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웠고 오랜 세월 노력해 왔다. 스님은 수효사를 열기 전인 1980년 우리출판사를 설립했다. 오랜 세월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성훈 스님의 뜻을 받든 것이다. 스님은 많은 경전과 고승열전 등 불서 출판을 통해 출가자의 본분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싶었다. 지금까지 우리출판사는 약 200여 종의 불서를 출간했다.

스님의 남은 원력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다. 상담심리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길러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노후를 맞는 당사자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가끔 묵언도 하고 단식도 하고 잠적(만행)도 한다고 했다. 스님에게는 여전히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사에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며칠 묵언을 하고, 단식을 하고, 세상과 떨어져 세상을 보고 오면 지금의 자리가 본분사로 다가온다고 했다. 스님은 '복지'와 '출판'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쉽지 않은 많은 세월이었다. 하지만 임종을 맞으며 "그 동안 고마웠어요."라며 눈물짓는 어르신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힘들었던 시간의 기억을 지워냈다. 스님이 일어서며 책상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다. "저 분들 보면, 저 환하게 웃는 얼굴 보면 저에겐 여기가 선방이예요." 스님의 대답은 그 사진 속에 있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hyunbul.com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수효사효림원'. 복지법인설립 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수효사에도 대문을 달았다.

전법일기

LMB 싱어즈와의 인연

2005년 겨울, 인도네시아 해외포교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팔공산 은해사 백흥암에서 동안거를 하고 있었다.

오후 입선에서 달려드는 수마는 망상과 친구가 되어 시간을 잡아먹는다. 모두 내뿜으며 화두를 드는데 갑자기 LMB 싱어즈가 떠오른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불교계 유일의 혼성4부 중창단. 한 번의 공연을 보고 나는 그만 반해버렸다.

2~30대로 구성된 전문 성악인 불자들이 구성되어 현대감각에 맞게 찬불가로서 씩씩하게 법음을 널리 퍼고 있었다. 그들을 만난 것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조금씩 그들을 알게 되면서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워 언젠가 내가 함말이 떠오른다.

"혹시, 해체를 해야 하는 위기까지 온다면 나에게 꼭 연락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너무도 소중한 단체였기에 열악한 사정을 감지한 염려였던 것 같다. 나는 오후입선 3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LMB 싱어즈를 도울 수 있을까?" 라는 화두를 들었다. 아무리 나의 본참화두를 들리고 해도 불가능했다.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지도법사가 되어서 후원회를 조성하고 법문을 해주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3시간을 망상으로 보내고 방선을 하고 나오니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급히 전화를 부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황영선 LMB 싱어즈 대표다. 전화를 해보니 5명의 단원이 탈퇴하여 단체의 존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 이것은 무슨 우연인가' 걱정과 환희심이 동시에 느껴진다. 얼마나 염

찬불포교 길을 걷는 이들에게 박수를...



그림·박구원

려가 강했으면 그 에너지가 이곳까지 전달되어 나로 하여금 그들을 생각하게 했을까? 마음의 힘이란 정말 굉장하다. 함께 의논한 끝에 음악법회라는 것을 만들어 다시금 일어서 보기로 했다.

이렇게 나는 이들의 지도법사가 되었다. 음악법회는 모든 의식은 간소화하고 노래로 시작하여 노래로 끝나는 쉽고도 재미있는 법회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니 2년이 되어도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산하에 만든 아마추어 합창단이 우뻛까 합창단이다. 누구든지 찬불가를 배우고 싶으면 남녀노소 연령을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합창단원들이 조금씩 늘게 되면서 무대에 25명을 세울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 나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낙성대입구 그들의 음악당으로 간다. 저녁 7시가 법회시작이라 법회시간을 맞추어 가려면

퇴근시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교대역에서 갈아타려면 한바탕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빽빽한 사람들 숲속에 스님으로서 밀치고 올라타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덧 그들의 인연을 이어간 지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젠 그만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 누군가 능력있는 스님이 맡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속으로 되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문이 끝나고 우뻛까 합창단과 LMB 싱어즈의 노래를 듣고 나면 나의 피로감은 환희심으로 변한다.

지난 12월 6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창작찬불가 4집 출판기념 및 후원회 밤 음악회를 했다. 그동안 연습한 것을 후원자들에게 감사와 함께 발표하는 날이다. 오늘따라 우뻛까 합창단의 음성이 청아하다. 이어서 13명의 혼성4부 중창단과 피아니스트들의 공연에 사람들은 감동과 감명으로 눈가가 촉촉해진다. 거침없는 하모니에 속이 다 후련하다.

요즘 산사음악회에는 찬불가를 부르는 사람보다는 유명연예인이 많이 초대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난다. 찬불가가 더 많이 불려져 진정 불자들의 신심을 고양시키는 음악회가 되면 좋겠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축제였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흐르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찬불가로 중생의 불성을 일깨우겠다는 찬불포교의 길을 선택한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큰 박수를 보낸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 입 증 안 내 ◆**
- 1) 입증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법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6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 2) 입증 후 발급증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대한불교조계종총연합회 회장·동아메일신문사 사장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회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철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해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호소리, 질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 중노릇하는법, 상주관공, 구병시식등, 천도제,
- 전 문 2년 - 시왕각배, 예수제, 영산제, 수록제,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